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 (<https://keas1967.com>) / 발행인 박선형 / 편집인 박상완 / 편집팀 황은희, 정소연, 김명신 / E-mail keas1967@daum.net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층 902호(도화동, 마스터스타워빌딩)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https://keas1967.com>)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한국교육행정학의 지식 성장과 학문적 위상 제고

주 현 준 | 대구교육대학교

지난 7월, 허준이 고등과학원(KIAS) 석학 교수 겸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상하였다. 국제수학연맹(IMU)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ICM)에서 허 교수 등 4명을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두고 국내 언론에서는 일제히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탁월한 인재를 길러낸 한국 수학계의 위상을 확인한 쾌거'라며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석사를 받았다는 점과 재능발견에 도움을 준 학계의 제도적 뒷받침을 높게 평가하였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은 한국교육행정학계에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하나는 오래된 난제(難題)에 도전하는 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난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통해 한국교육행정학의 지식 성장과 학문적 위상 제고를 생각해 본다.

한국교육행정학의 오랜 난제들

한국교육행정학계에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난제가 많다.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 증명이 필요한 난제들(교육리더십의 인과성, 연구방법의 정합성 등)과 실제로 해결책이 요구되는 난제들(사교육, 대학입시, 교원업무, 교원승진 등)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1967년 창립한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지난 60년간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부단히 노력해 왔다. 180회가 넘는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차례 난제를 다루었고, 40권이 넘는 학술논문집에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앞서 열거한 한국교육행정학의 오랜 난제들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분명한 답을 찾지도 못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사회과학인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다. 틀린 주장은 아니다. 사회과학인 교육행정학과 자연과학인 수학은 분명히 다르다.

특히 연구대상, 이론적 근거, 연구방법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에 아마도 교육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교육행정학은 앞서 소개한 허 교수의 학문분야인 수학에서 증명을 마칠 때 사용하는 기호인 QED(quod erat demonstrandum)를 영원히 쓰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이는 '민감하고 답이 없을 것 같은 문제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한국교육행정학계의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학문적 특성을 이유로 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난제를 외면한다면 교육행정학의 위상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한국교육행정학계에서는 난제에 친착한 연구자를 찾기가 어렵다. 특정 난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평생의 연구과제로 도전하는 연구자보다 다양한 연구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연구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특정 난제에 친착하는 연구자는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는 진부한 학자로 저평가되는 학계의 분위기를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행정현상의 본질보다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래교육을 주장하는 교육행정학자들의 목소리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적 진실에 토대를 두지 않은 지식은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갖는 지식 앞에서 도태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지식은 낡은 지식을 포괄하고 대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지식이 풀지 못한 문제를 풀고 난 후 가능한 일이다. 과거의 지식이 풀지 못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지식을 계속 유입한다면 교육행정학의 난제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한국교육행정학의 난제들에 접근하는 방식

다시 허준이 교수의 수상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 허 교수는 지난 5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리드 추측(1968년)', '로타 추측(1971년)', '호가 추측(1974년)' 등 무려 11개의 수학 난제를 잇달아 해결하였다. 주목할 점은 허 교수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인 조합론과 대수기하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경계를 허물고 새롭게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전혀 다른 분야로 여겨지던 이론에서 흡사한 구조를 간파하고 이를 도입하여 얽힌 매듭을 풀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허 교수가 대학원 석사 과정 때부터 엉뚱하면서도 새로운 생각의 프레임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교육행정학으로 돌아와 본다. 아직까지 고질적인 난제를 풀기 위한 한국교육행정학계의 문법은 전통적인 지식에 갇혀 있다. 난제에 관한 학술대회의 토론에서는 긴장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생산적인 논쟁이 아닌 피상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비판적 회의론은 있지만 실제적 개선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난제에 관한 학술논문에서는 기발한 생각과 새로운 시도를 찾기 어렵다. 다른 분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지식을 창시하는 노력은 커녕, 교육학의 하위 영역 간 경계조차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식과 방법으로는 어떤 진전도 마법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사고 체계로 풀 수 없었던 굳게 묶인 난제의 고리를 풀기 위한 창의적 지식이 절실하다.

나쁜 교육행정학자가 좋은 학계를 만든다.

창의적 지식은 정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절대 나타날 수 없다. 지식의 성장은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올바른 반란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국교육행정학의 지식 성장과 학문적 위상 제고를 생각할 때마다 ‘나쁜 며느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구호가 떠오른다.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준 이 구호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의 노인 돌봄이 사회서비스로 옮겨지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 구호는 ‘실제 부모를 잘 모실 수도 없으면서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참고 참다가 결국 사회문제가 되고 말았으니 나쁜 며느리가 되어 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혹여 어느 교육행정학자의 주장처럼 한국교육행정학계에는 은연중에 개방적인 토론과 비판적 문제 제기가 전통적인 사제관계나 선후배 문화를 파괴하는 나쁜 행위로 내재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학계에 새로 진입한 학문후속세대가 주류를 형성한 기성세대의 학문적 가치관과 연구방법에서 일탈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교육행정학의 지식 성장과 학문적 위상을 제고하는 일은 오래된 난제에 대한 도전과 난제 해결을 위한 열린 생각과 그것을 인정하는 한국교육행정학계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 시론 |

국내 교육행정학의 학문 동향

서재영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식민지배를 겪으며 전통의 교육과 단절된 채 일본에 의해 서양식 교육이 강제로 이식되었다. 또한 일제치하에서 이식된 서양식 교육이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발전하였다.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교육체제는 고도로 집중된 중앙통제 하에서 운영되어 왔고,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이돈희, 1999).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에서 대부분의 기본적 법규 제정은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본적인 정책도 모두 정부 주도로 개발되고 시행되었다(이돈희, 1999).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그동안 명목상 이루어져오던 지방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중앙정부주도의 정책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뀐 채 관료주의적 체제도 지속되고 있다. 1999년에 「교육정리론」에서 ‘실제로 어떤 제도적 변화나 실천적 혁신이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도에 의하지 않고 어느 지역이나 기관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보급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커다란 변화나 혁신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다(이돈희, 1999)’고 지적한 내용이 지금도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II. 초·중등교육: 지속적인 처방적·실제적 연구 중심 기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 속에서 교육행정 연구도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기초 연구보다는 처방적이고 실제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이종재, 2002). 정부 주도로 정책이 개발 및 시행되고, 법규 제정이 이루어지며, 교육체제 운영에서 관료주의적 체제가 지속되면서 교육행정 영역에서도 독자적인 이론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검증을 해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김병찬·유경훈(2017)의 연구에 따르면 1983년에서 2016년까지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1,433편 중 ‘교육행정 이론 및 연구(교육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체계화된 분석틀과 지식확장 및 문제해결 등의 과학적인 탐구활동)’를 주제로

한 연구가 99편(6.91%)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행정 이론 및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들은 1980년대(1983-89)에는 총 53편 중 8편(15.09%)이었으나, 2010년대(2010-2016)에는 총 424편 중 26편(6.13%)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인 비중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 연구에서의 처방적·실제적 연구 기조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시기별로 세부주제 상에서 다소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정책 및 기획(교육목표달성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 및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 주제, 188편, 13.12%), 교육재정 및 경제(교육활동 지원 경비 조달 및 관리 관련 주제, 84편, 5.86%), 교육법규 및 제도(교육활동 관련 강제적 규범과 교육목표 실현 위한 사회적 장치 관련 주제, 112편, 7.82%), 교육인사행정(교육활동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행정 관련 주제, 64편, 4.47%), 교육행정체제(중앙교육조직과 지방교육조직 및 단위 학교조직의 총체적 상호작용, 99편, 6.91%), 장학(26편, 1.81%), 교원교육(92편, 6.42%) 등을 주제로 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발표되고 있었다(김병찬·유경훈, 2017). 이는 우리교육의 특징인 고도로 집중된 중앙통제 하의 관료주의적 체제가 교육행정의 연구주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고등교육: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에의 적응을 돕는 처방적 연구

‘고등교육’과 관련된 영역도 교육행정 연구에서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등교육은 연구 영역이나 주제라기보다는 학제의 한 단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나 기존에 주류를 이루는 초·중·고 단계의 교육행정 연구와 구분지어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많은 연구자들이 고등교육을 하나의 연구 영역 혹은 연구 주제로 구분해 왔다(김병찬·유경훈, 2017; 서정화, 2008; 신현석 외, 2009; 임연기·김훈호, 2018). ‘교육행정학연구’에서도 1983년 창간 이후부터 고등교육 영역을 다루는 논문들이 13%대에서 15%대 사이로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김병찬·유경훈, 2017).

임연기·김훈호(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교육행정학연구’에 발표된 논문 중 고등교육을 영역으로 한 논문은 107편인데, 그 중에서도 ‘교육행정 이론 및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는 단 3편(2.8%)에 그쳤다. 고등교육 영역에서도 처방적·실제적 연구 기조가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 영역에서도 여전히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논문이 24편(22.2%)으로 많았다. 그러나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교육법규 및 제도’나 ‘교육행정체제’를 주제로 한 논문은 단 한편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를 주제로 한 논문이 22편(20.6%) 이었고, ‘행정 및 지원’을 주제로 한 논문이 11편(10.3%), ‘책무성 및 교육의 질 보장’을 주제로 한 논문이 15편(14.0%)으로(임연기·김훈호, 2018) 고도로 집중된 중앙통제 하의 관료주의적 체제가 연구의 주제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등교육 영역에서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논문은 주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사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고등교육영역에서는 초·중·고 교육에서와는 달리 재정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중앙통제나 관료주의적 성격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중앙통제나 관료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연구 대신에 최근 고등교육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대학이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었다. 고등교육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 저출산 및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대학의 차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을 의미하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대규모 미충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점점 관심을 쏟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방안 중의 하나로 대학교육의 질제고나 노동시장 적합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변화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변화하고 있으며,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의 변화다. 1970년에 5.4%에 불과했던 고등교육 취학률이 2020년에는 70.4%로 수직 상승했다. 이로 인해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의 다양성이 커졌고, 대학에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집단이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상에서 살펴 본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은 기존의 교수자 중심, 공급자 중심, 엘리트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고, 다양성이 증대되며, 창의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연구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IV. 나가며

국내 교육행정학은 초·중등교육 분야나 고등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이론 연구보다는 처방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초·중등교육 분야 연구의 경우 중앙통제와 관료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고등교육 분야 연구의 경우 정책 연구는 재정지원사업과 관련되었으며, 그 외에는 고등교육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을 돕는 처방적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는 차이를 보였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교육자치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학교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학교자치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 및 기획, 교육재정 및 경제, 교육법규 및 제도, 교육인사행정, 교육행정체제, 장학과 같은 중앙통제와 관료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주제를 넘어서서 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학교의 교육공동체, 학교 운영 원리 등 연구주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1) 고등교육의 환경변화 부분은 서재영 외(2021)의 연구에서 기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기술함.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급격한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선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도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처방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교육행정 이론 개발을 통해 근본적인 상황진단, 사례 연구를 위한 근거 이론의 개발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다양한 처방적 연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우리의 교육 상황에 맞는 고유한 이론 연구라는 두 개의 튼튼한 다리로 교육행정학이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돈희(1999). 교육정의론(수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이종재(2002).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이론 수립의 현황과 발전좌표.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5-166.

김병찬·유경훈(2017). '교육행정학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 동향 특징 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4), 173-200.

서재영·김은영·우선영·임후남·조옥경·최정윤·이상은·한은정(2021).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서정화(2008).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6(1), 119-139.

신현석·박균열·전상훈·주희정·신원학(2009). 한국 교육행정학의 연구 동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4), 23-56

임연기·김훈호(2018).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동향 및 활용 지식의 특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6(1), 355-382.



| 시론 |

해외 교육행정학의 지식 성장과 학문 동향

임 선 빈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1979년 Campbell이 교육행정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에 초기 14년간(1965-1978년) 게재된 연구물을 분석한 이후 교육행정학이 쌓아올린 지식 성장과 학문 동향에 대한 분석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행정학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 60년에 걸쳐 해외 교육행정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외 교육행정학의 지식 성장과 학문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행정학의 발전¹⁾

1950년대 후반 시작된 ‘교육행정학의 이론 운동’을 시작으로 교육행정학은 근대적 학문으로서 태동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육행정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논의하기 위한 철학적, 이론적 토대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명확한 경계나 독자적인 연구 영역,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주된 관심사로 하였다. 이는 이후의 교육행정학이 일관된 체계에서 연구 분야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는 여전히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뿌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던 성장기로 볼 수 있다. 경험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토대를 다졌지만, 교육행정학의 본질적 연구 분야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 이론적 토대가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했던 시기로 분류된다.

1980년대는 교육행정학 학문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산발적으로 축적되었던 학문적 논의가 ‘효과적인 학교 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학자들 간 통용되었는데, 이를 위한 주변적 논의로 학교 교장의 역할과 그들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주제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논의는 학교 개선(school improvement), 교장의 교수리더십(principal instructional leadership) 등으로 확장되었다. 1990년대는 1980년대에 체계적으로 축적되었던 리더십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학 연구 분야 내에서의 이론적, 연구 방법적 확장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재구조화(school restructuring),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school leadership) 등이 새로운 연구 주제로 떠올랐다. 2000년대는 과거 교육행정학 연구 분야의 주요 흐름이었던 학교장 리더십과 학교 개선이

1) Hallinger와 Kovačević(2019)가 분석한 ‘The Evolu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통합적으로 논의되던 시기였으며, 이는 분산적 리더십(shared leadership)과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Hallinger와 Kovačević(2019)는 현재 교육행정학의 경향을 통합(consolidation)과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두 가지 키워드로 표현하는데, 교육행정학이 마주하고 있는 학문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행정학의 학문 동향

해외 교육행정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교육행정학 학문이 마주하는 변화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첫째, 교육행정학 지식은 지난 60년 동안 그 속도를 가속화하며 축적되어 왔다. Hallinger와 Kovačević(2019)는 Scopus에 등재된 교육행정학 관련 22개의 학술지에 1960년에서 2018년 사이 게재된 22,361편의 연구물을 분석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은 연구가 게재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에 1,544편, 1970년대에 2,563편의 교육행정학 연구물이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에는 4,386편이 게재되었다. 이는 교육행정학 지식이 최소한 양적으로 팽창하며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육행정학 연구 주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80년대까지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학교 조직(organization), 행정(administration), 경영(management)을 대신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교육리더십(educational leadershi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수정 외, 2018; Hallinger & Kovačević, 2022). 이는 단순히 게재된 연구물의 수 뿐 아니라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연구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특히 최근에는 협력적(collaborative), 분산적(distributed), 혹은 교사리더십(teacher leadership) 등의 개념으로 통용되는 공유된 리더십(shared leadership)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효과적인 학교 교육을 위한 교수 리더십에서 시작된 리더십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거쳐 공유된 리더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교육행정학 안에서 어떤 다른 지도성에 관심이 모아질지 또한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학 연구는 점차 세계화, 국제화 되는 경향을 보이며 복합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Hallinger, 2020; McGinity et al., 2022). 초기 교육행정학의 이론적 논의와 성장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영미권, 유럽권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긍정적인 것은, 최근 이러한 지역적 편향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학 지식 생산이 활발하다. 특정 국가 위주의 학문 성장은 국가 간 지식 기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교육 맥락과 환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행정학 지식 생산 및 축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학 분야 내에서의 연구방법론의 다양성, 그리고 경험 자료의 강조를 꼽을 수 있다. 교육행정학 연구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양적연구 방법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질적연구와 혼합연구의 활용이 증가하고, 문헌연구나 네트워크 분석 등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목격할 수 있다(이수정 외, 2018; McGinity et al., 2022; Murphy et al., 2007). 이와 함께 경험 자료를 분석하는 실증 연구(empirical research)의 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McGinity et al., 2022; Oplatka, 2009), 이는 교육행정학 학문 내에서의 연구의 과학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해외 교육행정학 동향에 대한 논의를 한국의 교육행정학 동향과 단순 비교하여 함의를 이끌어 낸다거나 미래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김병찬(2022)이 지적했던 것처럼 학문이나 이론의 뿌리는 각 나라의 논리나 맥락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교육행정학의 국제화 경향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고유한 이론과 지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적 무대에 드러내고 복합적 관점에서 논의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찬. (2022). 어느 교육행정 연구자의 부끄러운 실존적 고백. *교육행정학회 소식지*, 145호, 15-23.
- 이수정, 김승정, & 임희진. (2018). 미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동향 분석: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5), 271-292.
- Campbell, R. F. (1979). A critique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15(3), 1-19.
- Hallinger, P. (2020). Science mapping the knowledge base on educational leadership and management from the emerging regions of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1965-2018. *Educational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Leadership* 48(2), 209-230.
- Hallinger, P., & Kovačević, J. (2019). A bibliometric review of research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cience mapping the literature, 1960 to 2018.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9(3), 335-369.
- Hallinger, P., & Kovačević, J. (2022). Mapping the intellectual lineage of educational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leadership, 1972–2020. *Educational Management Administration & Leadership*, 50(2), 192-216.
- McGinity, R., Heffernan, A., & Courtney, S. J. (2022). Mapping trends in educational-leadership research: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knowledge production, approaches and locations. *Educational Management Administration & Leadership*, 50(2), 217-232.
- Murphy, J., Vriesenga, M., & Storey, V. (2007).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1979-2003: An analysis of types of work, methods of investigation, and influenc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43(5), 612-628.
- Oplatka, I. (2009).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a Contextually Based Field of Study: Reflections from the 2008 Commonwealth Council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Conference in South Africa. *International Studie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mmonwealth Council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 Management (CCEAM))*. 37(3), 3-20.

연구윤리 시리즈 2

- 연구윤리 인식 수준, 연구부정행위 규정 -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1차(연구윤리 인식 수준, 연구부정행위 규정), 2차(연구윤리 위반 유형, 처리결과)에 걸쳐 뉴스레터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1차에 이어 2차 내용을 전달해드립니다. 본 내용은 '한국연구재단(202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관한 연구. 이슈리포트'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 연구윤리 위반 유형

(1) 연구부정행위

① 논문표절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표절'이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음. 즉,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 논문표절 사례
 - ▶ 사례에 따르면 인용표기 없이 논문내용 일부를 말바꿔쓰거나 짜깁기하는 경우, 다른 논문과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 문장에 대한 인용표시가 없고 참고문헌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 표절로 판정하고 있음
 - ▶ 논문표절 사례

사례	주요 내용(판정사항)
논문내용 일부를 인용표기 없이 표절함	- 내용표절, 말바꿔쓰기 표절, 짜깁기 표절에 해당
석·박사 과정 졸업생들이 이미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을 그대로 베껴 사용,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를 공동처자로 등록	- 표절 대상 논문과 서론, 연구방법, 데이터, 연구결과 등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
타 연구자의 논문 표절	- 동일한 문장에 인용표시가 없고, 참고문헌도 정확하지 않은 점 등 포함 문장과 문맥의 동일성에서 표절에 해당됨

②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게재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 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라고 제시하고 있음. 즉,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를 의미함
- 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라고 제시하고 있음. 즉,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를 의미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부당한 중복 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를 의미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 부당한 저자 표시·중복 게재 사례
 - ▶ 사례에 따르면 논문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한 저자 표시는 부당한 저자 표시로 인정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동일한 논문을 다르게 게재하는 경우 부당한 이중투고 및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있음
 - ▶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 사례

사례	주요 내용(판정사항)
저자 논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않고 제1저자로 등록	- 제1논문: 논문 기여가 미미함에도 제1저자로 표기 - 제2·3논문: 기초적인 교신역할 이상의 기여하지 않음에도 교신저자로 게재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강요에 의해 저자로 표시	- 표절 대상 논문과 서론, 연구방법, 데이터, 연구결과 등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
논문 표절 의심	- 표절 및 부당한 중복 게재 해당
논문의 부당한 중복 게재 의심	- 이중 투고·중복 게재·자기 표절에 해당

(2) 연구비 부정 사용: 사업비 횡령, 편취 또는 유용 및 의도적인 사업비 부정사용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의 사업비 부정사용 유형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업비 부적정 집행과 유용, 자문활동수당 부정지급 사례 등임

사례	주요 내용(판정사항)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선정·관리 감독 및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연구보조원 등에 전달하여 연구비 집행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연구보조원들의 통장을 일괄 수거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 하였으며, 일부 금액을 학생들에게 재분배하고 축적된 금액 전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송금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연구실 운영경비 마련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에게 국내여비를 허위로 신청하고 허위서명 등을 하였음

사업비 부정적 집행	- 제자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2인을 조사연구활동비 지급대상으로 등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들이 제출한 결과물은 연구보조원 등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
사업비 부정적 집행	- 해외여비 지급, 시 숙박비, 식비 등 출장비 중복 계상 3건 - 회의 참석자 허위 기재(회의 참여자 강의시간 중복 및 해외출장 등) 12건 - 불참 회의에 대한 회의비 집행 등 9건
자문활동수당 부정지급	- 사무실을 방문해 사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인데도 총 6회에 걸쳐 자문활동수당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지급
사업비 유용(연구비 편취)	- 사업 계획에 작성되지 않은 범용성 기자재 구입 - 동일(근접) 시간에 복수의 회의에 동일인 회의 참여 등 - 기타 회의비 목적 외 사용 등

(3) 이 외에도 갑질 사례, 성비위 사례,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위반 관련 제재 조치 및 처리결과

- 최근 5년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윤리 위반 관련 제재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1건의 제재조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2016년 3건, 2017년 12건, 2018년 14건, 2019년 7건, 2020년 5건으로 최근에는 연구윤리 위반 관련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관련 인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총 41건의 제재조치를 제재사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부정행위 19건으로 가장 많고, 용도 외 사용 16건과 거짓·부정한 방법 3건 및 협약위반 3건 등임
- 또한 제재사유 세부내용으로는 논문표절이 15건으로 가장 많음. 그다음으로 연구보조원 허위등록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각각 5건 등임

• 2022년 학회주요소식 •

1. 한국연구재단 2022년 학술지 지원사업 신규과제 최종선정

학회 회원님들의 논문투고 활동과 심사위원님들의 헌신적 봉사 및 편집위원회의 철저한 질관리에 힘입어 2022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회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적 관심에 기인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 부회장선거안내

오는 11월에는 제51대 부회장(제52대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부회장선출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학회 회칙」 제15조에 의거 하여 이사의 추천을 받아 두 명의 부회장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51대 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회비 납부와 회원 정보 업데이트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학회 회칙」 제15조 6항에 의거, 부회장 선출을 위 한 투표를 온라인(전자)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선거 참여 자격은 「교육행정학회 회칙」 제15조 1항에 따라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2년 연속(2021년, 2022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 부여됩니다. 연회비(일반 정회원의 경우 50,000원, 우리은행 1005-503-626675, 예금주: 한국교육행정학회)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회장 선거에 관한 주요 일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항목	내용	일정	비고
1	부회장 후보 추천 의뢰	- 당연직 이사 및 최근 3년간의 선임직 이사 - 이사별 후보자 2인 추천 - 온라인 투표 (사무국 이메일 활용)	10. 29 (토)~ 11. 4 (금)	사무국
2	후보 선정 및 수락	- 개표 및 다득표자 3인 후보 선정 및 후보 수락 여부 확인(위원장이 유선으로 확인)	11. 6 (일)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 회의
3	선거자료 요청 및 작성	- 후보 수락자 동의서 및 선거자료 제출 요청 - 선거자료 수합 및 최종 확인: 11. 10 (목)	11. 6 (일)~ 11. 10 (목)	사무국
4	선거인명부 작성	- 2022년 기준, 2021년 및 2022년 2년간 - 연회비 납부자 명단 작성	11. 6 (일)~ 11. 10 (목)	사무국
5	부회장 선거 안내	- 학회 홈페이지 및 단체 메일 공고	11. 11 (금)	사무국
6	부회장 투표	- 온라인 비밀투표시스템 'NOWNVOTE' 활용 ※ 2022년 10월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선거 시스템 제공 중단됨에 따라 투표 플랫폼 변경함	11. 17 (목) ~ 11. 18 (금)	사무국
7	개표 및 선거 결과 공고	- 개표일: 11. 19 (토) - 결과 통지: 결과 확인 즉시 (11. 19) - 결과 공지: Homepage 공지 (11. 19)	11. 19 (토)	위원회

3. 회원 소식

● 부산대학교 홍창남 교수, 교무부총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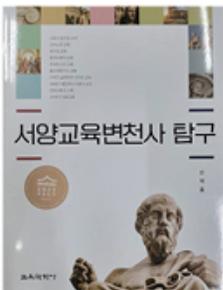
교육행정학회 회원이신 홍창남 교수님의 부산대학교 교무부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 교육혁신원 원장 취임



교육행정학회 회원이신 김민희 교수님의 대구대학교 교육혁신원 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한성대 신재흠 교수 저서, "서양교육변천사 탐구" 22년도 세종(문광부) 우수도서로 선정



신재흠 교수님의 저서 '서양교육변천사 탐구(교육과학사, 2021)' 서양교육사를 다양하게 기술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서양교육사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 시대 구분에 따라 통사적으로 기술하면서 당시 교육의 형성 배경, 교육제도, 대표적 교육사상가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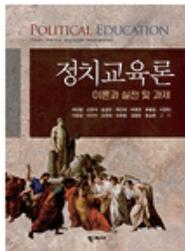
● 충남대 주삼환 명예교수 저서, "감동영화 감동교육" 22년도 세종(문광부) 우수도서 선정



주삼환 명예교수님의 저서 '감동영화 감동교육(교육과학사, 2022)'은 굿 윌 헌팅, 죽은 시인의 사회, 내 마음의 풍금 등 영화라는 예술을 통해 바라본 교육의 중요성과 본질을 저술한 저서로서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안내하고 있다.

4. 회원 신간 안내

〈정치교육론-이론과 실천 및 과제〉 박선형 외 공저/학지사/2022.07.28.출간



본 저서는 3부 각 5장씩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정치교육론의 이론적 기초이며, 제2부는 정치교육의 실천적 토대이다. 제3부는 정치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다. 『정치교육론』은 교육의 탈(비)정치화 신화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면서, 정치과학의 제반 이론과 쟁점적 시각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교육정치 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논쟁, 세대갈등, 젠더충돌,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내재적 차별성 등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정치교육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 핵심가치 존중과 올바른 가치판단 능력제고 및 비판적 정치독해력 함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통한 개인성장과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리더십 트렌드〉 신재홍 저/ 동문사/ 2022.10



본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환경,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학교와 교육리더십,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리더십 트렌드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리더십을 전망하고자 한다. 교육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쉽게 풀어쓰면서 〈학습목표〉, 〈Keyword〉, 〈생각해 봅시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육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책은 교육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교장론: 성찰적 실천의 관점〉 신현석 외 저서/박영스토리/2022.10.11.



본서는 세계 교육행정학계의 석학인 Sergiovanni와 Green의 'The Principalship(제7판)'의 번역서로서 교장 리더십의 4가지 차원, 교장 역할과 책무, 직면한 이슈, 경영과 리더십 기능의 조화, 학교리더의 역량과 성향, 교사효과성 측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교장직에 대한 제반 논의를 포괄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여러 경영이론과 리더십 실체가 학교의 실제 세계와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학교 상황에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를 다르게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본서가 기여할 것이며, 학교현장과 교육기관의 현재 리더나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 및 교육리더십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5. 정책연구 수주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현재까지 8개의 정책연구 과제(549,873,800원)를 수주하였습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정책연구 참여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연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학회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총 연구비 (간접비)	발주기관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연구	김민희 (대구대)	2022.02.08.~2022.07.31.	49,414,000원 (2,964,840원)	한국장학재단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정진단 용역	김민희 (대구대)	2022.03.14.~2022.06.11.	12,000,000원 (679,410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국립학교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	김민희 (대구대)	2022.04.04.~2022.10.03.	10,000,000원 (561,630원)	교육부
교육지원청 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박삼철 (단국대)	2022.07.25.~2022.12.31.	30,000,000원 (1,698,113원)	KEDI
장병 인성교육 민간위탁프로그램과 군 자체 프로그램의 효과성 비교	김종민 (경인교대)	2022.08.08.~2023.01.07.	38,459,800원 (2,176,970원)	국방부
교육대학원 역할 재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박남기 (평주교대)	2022.08.23.~2022.12.31.	40,000,000원 (2,301,874원)	KEDI
아동청소년 보호 및 성장 종합 지원방안 연구	이수정 (세종대)	2022.09.19~2023.01.18.	50,000,000원 (2,572,899원)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과)
예비현직 교원 AI역량 강화 사업 성과 분석 및 신규 사업 시범운영	연구책임자 박선희 (동국대) 세부연구책임자1·2 박상완(부산교대), 오세희(인제대)	2022.09.01.~2022.12.31.	300,000,000원 (18,000,000원)	서울대산학협력단 ·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
지역사회 연계 공유학교 모델 개발 및 정책화 방안 연구	신철균 (강원대)	2022.10.06.~2022.12.30.	20,000,000원 (1,000,000원)	경기도교육청 (미래학교기획과)

6. 학회행사소식

1) 세대교류연구 위원회 5월 세미나

가. 일시 : 2022. 5. 21(토) 오전 10:00~12:00

나. 장소 : ZOOM 온라인

다. 주제1. 교장리더십에 관한 양적연구의 문제와 과제: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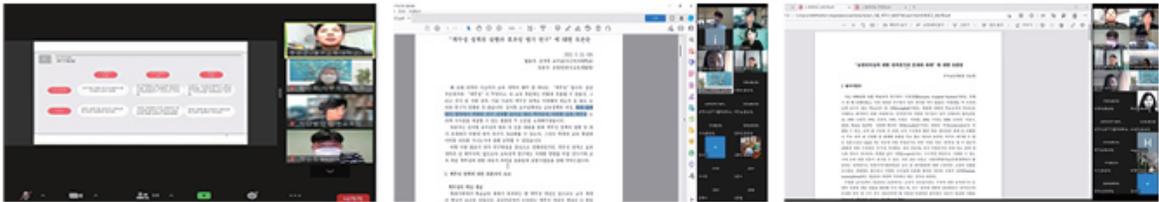
발표 : 주현준(대구교대)

토론 : 권순형(한국교육개발원)

라. 주제2. 책무성 정책의 실행과 효과성 평가 연구: 양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발표 : 김지현(성신여대)

토론 : 모영민(한국교육개발원)



2) 2022년 하계 학술대회(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분과학회 세션 운영)

가. 일시 : 2022년 8월 20일(토) 10:00~12:00

나. 장소 : ZOOM 온라인

다. 주제 : 교육행정학 연구 접근의 다원화: 새로운 관점의 혼합연구 방법론 활성화를 위한 예비적 논의

발표 : 변기용(고려대)

토론 : 박소영(숙명여대), 함승환(한양대)



3) 세대교류연구 위원회 8월 세미나

가. 일시 : 2022년 8월 20일(토) 10:00~12:00

나. 장소 : ZOOM 온라인

다. 주제 : 교육행정학 연구 접근의 다원화: 새로운 관점의 혼합연구 방법론 활성화를 위한 예비적 논의

발표 : 변기용(고려대)

토론 : 박소영(숙명여대), 함승환(한양대)



4) 연구방법론 세미나

- 가. 일시 : 2022. 9. 22일(목) 16:00~18:00
- 나. 장소 : ZOOM 온라인
- 다. 주제 :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특징과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활용방법
- 라. 강연 : 조용환 교수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5) 2022년 제2차 법인 이사회 회의

- 가. 일시: 2022년 10월 01일 (토) 오후 12시
- 나. 장소: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실 (마포)
- 다. 참석: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 사무국 담당자 등
- 라. 안건: 2022년도 50대 임원 및 위원회 소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 나. 2022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 학술대회

6) 향후 학술대회 개최

- 2022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 학술대회
- 가. 주제: 교육행정학의 공공적 가치 탐색: 미래를 위한 재설계
- 나. 일시(안): 2022년 12월 3일 (토)
- 다. 장소(안):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9. 2022년 회비 납부 명단(2022년 09월 30일 기준)

1) 2020년도 3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 (5명)

김은정, 김효정, 이한나, 정설미, 정희욱

2) 2020년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 (4명)

구성우, 나민주, 엄문영, 허병기

3) 2022년 신입회원이회비납부자 명단 (51명)

강민자	강지연	공후재	권수진	권은비	김금련	김다령	김리나	김문주	김보연	김수진	김지윤	김택균
남경민	남기곤	문정미	남경민	남기곤	문정미	문준식	문태열	박나경	박다슬	배정훈	서유립	서지혜
선미라	선소정	송광자	송원일	송유진	신동호	신미영	신유진	신은경	심연미	양정모	유종훈	윤경숙
윤익상	이만우	이미영	이승현	장나영	전지혜	정보현	정상준	정재원	최고은	최윤실	한상덕	현영섭

YIN MEISHAN LI ZHUPING

4) 2022년 기존회원이회비납부자명단 (172명)

강기남	강민수	강원근	강은숙	강호수	경미선	고장완	권순형	권초아	권희청	길혜지	김규태	김도기
김두한	김민조	김민희	김범주	김선이	김영식	김용우	김용일	김정아	김정현	김정희	김제현	김종규
김주영	김지선	김지연	김지현	김진원	김혜진	김희규	김희성	남인혜	노지영	류명혜	명주영	모영민
문보경	문영빛	문지윤	문찬주	민병성	민윤경	민천홍	박경호	박남기	박동찬	박삼철	박상완	박세준
박세훈	박소영	박소영	박수아	박수연	박수정	박승종	박유민	박재은	박정우	박태양	박효원	박희진
반상진	배상훈	백규호	백정하	변기용	변수연	선예경	설가인	손다운	손판이	송기창	송인영	송초의
신상명	신재영	신재흡	신정철	신하균	신하영	신현석	심태은	심현기	안병훈	안지혜	안희진	양윤정
엄준용	염민호	오혜근	우선영	우한솔	유길한	윤소희	윤 정	윤혜원	윤홍주	이경호	이기용	이길재
이동엽	이미희	이병도	이병식	이상철	이성희	이수정	이수지	이승연	이승현	이승희	이쌍철	이안나
이영신	이원재	이인서	이인수	이재덕	이정민	이진권	이창열	이필남	이혜직	이현주	이호준	임선빈
임수진	장덕호	장수명	장수연	장신애	장우천	장혜원	전주현	정동욱	정성수	정세환	정영현	정유리
정재안	정주영	정현석	조미애	조석훈	조효수	주현준	주희정	지은림	진형정	차지철	최성규	최연우
최재원	최준렬	최지원	하동엽	한송이	한재범	함승환	허 정	홍정은	홍지인	황수정	황영식	황윤한
황재운	황정훈	황준성										

5) 법인이사회비납부자명단 (1명)

윤정일

9. 2022년 회비 납부 명단(2022년 09월 30일 기준)

6) 이사회비납부자명단 (37명)

고 전 김규태 김도기 김명수 김민조 김민희 김병주 김 용 김이경 김정희 김희규 나민주
박경호 박남기 박상완 박세훈 박수정 박영숙 반상진 백정하 신재흡 신정철 양성관 엄문영
오범호 유길한 이쌍철 이인희 이재덕 임수진 정동욱 정성수 주현준 최준렬 함승환 황준성

7) 2022년도 기관회원납부 (5곳)

한국사학진흥재단, 전주교육대학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남서울대학교, 국회도서관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납부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정 하겠습니다.

※ 담당: 김명신 부간사(010-4023-8625, keas1967@daum.net)

10. 2022년 발전기금 납부 명단(2022년9월30일기준)

김민희(대구대학교) 100만원, 함승환(한양대학교) 100만원, 이수정(세종대학교) 20만원
학회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기탁하여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 제 50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박선형(동국대학교)
- 부 회 장 : 김병주(영남대학교)
- 감 사 : 염민호(전남대학교), 김갑성(한국교원대)

■ 이사회

- 당연직 이사 33인

김영식	신극범	신철순	김명한	남정길	이형행	윤정일	신중식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혜숙	반상진	박남기
고 전	박선형	김병주							

- 선임직 학회이사(66명, 위원 가나다 순)

고장완 (성균관대)	김갑성 (한국교원대)	김규태 (계명대)	김도기 (한국교원대)	김민조 (청주교대)
김민희 (대구대)	김병찬 (경희대)	김성기 (협성대)	김왕준 (경인교대)	김 용 (한국교원대)
김용련 (한국의대)	김이경 (중앙대)	김정희 (대교협)	김희규 (신라대)	나민주 (충북대)
남수경 (강원대)	박경호 (KEDI)	박대권 (명지대)	박상완 (부산교대)	박소영 (숙명여대)
박수정 (충남대)	박영숙 (KEDI석좌)	박종필 (전주교대)	박주형 (경인교대)	배상훈 (성균관대)
백정하 (대교협)	변기용 (고려대)	송경오 (조선대)	신정철 (서울대)	신재흠 (한성대)
신철균 (강원대)	안선희 (중부대)	양성관 (건국대)	엄문영 (서울대)	엄준용 (중부대)
오범호 (서울교대)	유길한 (진주교대)	윤홍주 (춘천교대)	이길재 (충북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엽 (KEDI)	이석열 (남서울대)	이수정 (단국대)	이승호 (KEDI)	이쌍철 (KEDI)
이인희 (제주대)	이재덕 (한국교원대)	이정기(백석대)	이정미 (충북대)	이필남 (홍익대)
임수진 (광주교대)	장덕호 (상명대)	전제상 (공주교대)	정바울 (서울교대)	정제영 (이화여대)
정동욱 (서울대)	정성수 (대구교대)	정수현 (서울교대)	주현준 (대구교대)	차성현 (전남대)
최정윤 (KEDI)	최준렬 (공주대)	하봉운 (경기대)	함승환 (한양대)	홍창남 (부산대)
황준성 (KEDI)				

▣ 분과위원회 구성(안) (위원 가나다 순)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홍보 위원회	박상완 (부산교대)	박소영 (숙명여대)	김진희(숙명여대) 주위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나민주(충북대) 한은정(인천대)	이인희(제주대) 황준성(KEDI)	이정미(충북대)
학술위원회	송경오 (조선대)	이수정 (세종대)	유경훈(KEDI) 함승환(한양대)	이호준(청주교대) 허은정(서원대)	정유리(전남대)	최원석(경인교대)
학회지편집 위원회	김왕준 (경인교대)	김민조 (청주교대)	김혜진(KEDI) 엄문영(서울대) 정성수(대구교대)	박수정(충남대) 이길재(충북대) 허주(KEDI)	박종필(전주교대) 이재덕(한국교원대)	양성관(건국대) 정바울(서울교대)
조직규정 위원회	이덕난 (국회입법 조사처)	박대권 (명지대)	고장완(성균관대) 신하영(세명대)	김종규(충신대) 유지연 (국회입법조사처)	김현준 (미국미네소타대) 전수빈(동국대)	서재영(KEDI) 전윤경 (원주북원여고)
재정기금 위원회	안선희 (중부대)	이경호 (고려대)	김상철(KEDI)	박호근(한국체대)	임준용(중부대)	
포럼운영 위원회	이동엽 (KEDI)	강호수 (경북대)	구하라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정아(KEDI)	김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박희진(계명대)
국제학술 위원회	김규태 (계명대)	임수진 (광주교대)	박효원(KEDI)	변수연(부산외대)	전재은(한국외대)	
학술편찬 위원회	변기용 (고려대)	신철균 (강원대)	김병찬(경희대) 이성희(KEDI)	김은영(고려대) 정동욱(서울대)	송경오(조선대) 정바울(서울교대)	이광현(부산교대) 정혜령(방송대)
정책연구 위원회	백정하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함승환 (한양대)	권도희(연성대) 신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희(대교협) 이석열(남서울대)	김지현(성신여대) 이진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송효준(KEDI) 한계범(강남대)
연구방법론 위원회	신철균 (강원대)	이성희 (KEDI)	김병찬(경희대) 송경오(조선대)	김은영(고려대) 임종현(KEDI)	김종훈(건국대) 정바울(서울교대)	변기용(고려대)
미래학교 연구위원회	이수정 (단국대)	서재영 (KEDI)	김다희(한국학중앙연구원) 이인수(용화여고 교사)	김상철(KEDI) 정대범(진주보건대)	김승정(대교협) 한희숙(불암고)	박균열(KEDI) 홍섭근 (경기도교육청)
신진학자 지원위원회	김훈호 (공주대)	김영식 (경남대)	문영빛(경남정보대) 이쌍철(KEDI)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호준(청주교대)	심현기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안영은(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부회장선출 관리위원회	이정기 (백석대)	배상훈 (성균관대)	김한나(총신대) 이희숙(강남대)	박삼철(단국대) 주영효(경상대)	신재흠(한성대) 최정윤(KEDI)	유평수(전주대)
윤리위원회	김민희 (대구대)	채계은 (가천대)	김용남(KEDI) 장상현(KERIS)	오세희(인제대)	오예진(대교협)	이전권(서울대)
세대교류 연구위원회	이성희 (KEDI)	주원준 (대구교대)	권순형(KEDI) 송효준(KEDI)	김한솔(산본교) 임종현(KEDI)	모영민(연세대) 채윤정(동국대)	민윤경(KEDI)
소식논문상 위원회	서정화 (홍익대명예)	노종희 (한양대명예)	강인수(수원대석좌) 이종재 (서울예대 법인이사장)	김혜숙(연세대) 임연기(공주대명예)	박세훈(전북대) 주삼환(충남대명예)	신중식(국민대명예)
주삼환리더십상 위원회	김성열 (경남대)	한유경 (이화여대)	김이경(중앙대) 신재흠(한성대)	박남기(광주교대) 천세영(충남대)	박영숙(KEDI석좌)	산봉실(나사렛대)

12. 제 50대 사무국 소개

제 50대 사무국이 새롭게 구성되어 2022년 동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연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s://keas1967.com E-Mail: keas1967@dam.net
학회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마스터즈타워빌딩) 9층 902호
사무국장	성명	황은희(경주대학교, jobcoach1@naver.com)
간사	성명	총무간사: 정소연(동국대학교)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업무 -keas1967@daum.net, 010-3450-7223
		총무부간사: 김명신(동국대학교) -업무: 회원 및 회비 납부관리, 홈페이지 관리 관련 업무 -keas1967@daum.net, 010-4023-8625
		편집간사: 김보경(경인교육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keas1967@nate.com, 010-5573-8661
		편집부간사: 김정수(경인교육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 및 발간 업무 지원, 게재료 납부 확인 -keas1967@nate.com, 010-7420-8587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